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교육 방향*

민창기**

요약

국제이해교육에서 외국어교육은 핵심 구성요소의 하나이다. 그것은 외국어 능력이 의사소통의 기초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언어학습 과정에서 해당 문화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외국어학습은 언어능력의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문화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은 외국어 학습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히 국제이해교육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세계의식, 국제예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실증연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조사대상은 외국어학습에 관심이 많은 관광전공 대학생으로 하였으며 총 482개의 유효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어학습태도는 국제이해의 다양한 요소 중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63$),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r=.41$), 세계의식($r=.41$), 국제예절($r=.39$)의 순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이러한 상관관계는 언어학습의 통합적 태도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구적 태도는 영어에서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외국어교육에서는 국제이해의 증진을 위해 실용적 목적의 언어학

* 본 논문은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조성기금에 의해 수행되었음.

** 동서대학교 부교수, ckmin@gdsu.dongseo.ac.kr

습 강조보다 해당 언어권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언어학습 과정에서 해당 언어 커뮤니티와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 학생들의 국제이해도 향상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향후 연구과제로 사회과 교과목뿐 아니라 외국어교육에서도 국제이해교육의 통합적 실시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외국어교육, 국제이해교육(EIU), 국제이해도, 통합적 태도, 도구적 태도

I. 서 언

외국어교육은 국제이해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것은 문화간 의사소통에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접촉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은 표정, 제스처 등 비언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의사소통에 제한이 따르고 상호 이해보다는 상호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Reisinger, 2009).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언어능력은 국제이해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으며, 개인의 국제이해도 측정에서 외국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김신일, 김영화, 김현덕, 1996).

이와 같이 외국어 능력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언어 외적인 측면에서 그 중요성도 함께 인식되고 있다. 즉 외국어 학습자는 학습과정에서 해당 언어권의 문화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되며, 언어 속에 내재된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습득하고, 한 문화의 가치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Harzing & Maznevski, 2002). 이러한 언어학습을 통한 문화습득의 가능성은 국제이해교육과 언어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어왔지만 (안종협, 2008; 이병민, 2008; 石川祥一, 2008;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 1979) 구체적으로 외국어교육이 언어능력의 향상 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실제적인 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교육은 단순한 언어교육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언어교육은 어학 관련 전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국제이해교육에서는 별도로 언어교육을 실시하기보다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교육을 국제이해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언어교육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온 외국어 학습태도 및 동기가 국제이해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국제적 이슈에 대한 태도, 세계의식, 국제예절의 습득 등 국제이해의 다양한 측면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외국어 학습태도가 국제이해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측면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밝혀줌으로써 외국어교육의 방향을 국제이해의 관점에서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국제이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외국어 교과가 어느 정도 효과적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게 해주며,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태도를 증

진시키는 것이 국제이해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외국어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이해교육과 외국어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에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따라서 외국어 학습태도 중 어떤 태도 및 동기가 국제이해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학습대상 언어(target language)에 따라 이러한 상호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어교육이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현재 수행되는 언어중심의 외국어교육에서 어떤 측면이 추가적으로 강조되어야 외국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국제이해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외국어 학습 태도

외국어 학습태도에 대한 연구는 제2언어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Ellis, 1986; Ortega, 2009). 이 분야의 많은 연구는 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기 또는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춰왔으며(Clément & Kruidenier, 1983; Corbin & Chiachiere, 1995; Ellis, 1986; Gardner & Lambert, 1972; Masgoret, 2006; Masgoret & Gardner, 2003), 연구결과에 의해 이런 태도 또는 동기를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도구적 동기 및 태도, 통합적 동기 및 태도, 내재적 동기 및 태도이다. 동기와 태도는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동기는 궁극적인 목표를 의미하며, 태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이 보이는 일관성(persistence)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Gardner & Lambert, 1972), 양자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또한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거의 태도가 현재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뿐(Gardner et al., 1999) 태도와 동기의 관계를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을 만큼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Ellis, 1986). 따라서 본 장에서는 태도와 동기를 문맥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되 이 분야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외국어 학습에서 도구적 태도(instrumental attitude)란 실용적인 필요성에 의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태도로 실용적 태도(pragmatic attitude)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에 속하는 학습동기로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경력에 필요하기 때문에, 봉급을 많이 받기 위해, 더 나은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 시험에 합격하기 등 외국어를 도구로 하여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Ortega, 2009).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점을 받기 위해, 전공을 공부하는데 원서를 읽어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업성취에 필요하기 때문에 등 다양할 수 있다(Ellis, 1986; Kim, 2004; Quist, 2000). 이러한 도구적 동기는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하면서 업무 및 경력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외국어 학습의 도구적 태도가 인위적이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태도라면(Ortega, 2009), 통합적 태도(integrative attitude)는 언

어학습에서 보다 자연스럽고 학습자 내부로부터 형성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며, 나아가 자신을 그 문화권의 일원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로 인해 언어를 학습한다면 이러한 동기를 통합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외국어 학습의 통합적 태도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만나며, 서로 사귀고, 친구가 되고자 하는 등의 동기에서 외국어 학습에 보이는 관심과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Masgoret & Gardner, 2003, 126-127). 이밖에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그 언어를 함께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Clément & Kruidenier, 1983) 이런 유형도 통합적 동기에 속하며, 외국에서 한류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진 것도 이러한 통합적 동기의 학습태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태도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언어학습 자체를 즐기는 태도라 할 수 있다. 즉 외국어를 학습하는 동기가 어떤 실용적인 목표가 있거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지 않고 언어학습 그 자체를 즐기는 태도가 있을 수 있다(Ortega, 2009). 언어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학습하는 경우, 새로운 언어의 발음이 매력적이어서 학습을 시작한 경우(Noels et al., 2000), 그냥 언어학습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경우, 언어를 공부하면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경우(Vansteenkiste et al., 2006)가 이러한 내재적 태도(*intrinsically motivated attitude*)에 속하는 학습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언어성취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언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재 개발과 교수법 개발 등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왔지만 많은 부분 이러한 태도는 언어능력 등 타고난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태도의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

한편 위에 언급된 3가지 대표적인 언어학습 태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학습동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언어를 배우는 사람마다 사회적 환경과 교육 환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좋아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세 가지 유형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밖에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싶거나, 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아 외국어 학습을 하는 경우는 도구적 태도, 통합적 태도, 내재적 태도 등 세 가지 영역 어디에도 속할 수 있다. 이렇듯 외국어를 학습하는 동기는 다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외국어 학습동기 및 태도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Dörnyei & Csizér, 2005; Dörnyei, Csizér & Németh, 2006; Yashima, Zenuk-Nishide & Shimizu, 2004).

III. 연구설계

1. 설문지 작성

설문지는 총 3부로 구성하였다. 제 1부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국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20문항,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10문항, 세계의식 10문항, 국제예절 5문항 등 총 45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설문문항의 선정은 1995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전국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용한 국제이해도척도와

Sampson과 Smith(1957)가 개발한 세계의식척도에서 추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문문항을 살펴보면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은 ‘외국에 대해 보다 많이 알고 싶다’, ‘TV에서 외국 소개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 등의 문항을 통해서,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는 환경, 기아, 인권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TV에 환경보호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나오면 열심히 본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부당하게 취급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다’ 등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또한 세계의식과 관련해서는 ‘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보다 세계의 시민이 되고 싶다’, ‘학교에서는 자기나라에 대한 역사보다 세계 역사를 더 가르쳐야 한다’ 등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제예절에 대한 설문문항은 관련 문헌(이상우, 정수원, 2010; 조영대, 하영습, 최승호, 2003)에 대한 내용분석과 이 분야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국제예절 분야를 공공장소 예절, 국제여행 예절, 식당예절, 대화예절, 방문예절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각 영역마다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여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국제여행예절의 경우에는 기내, 호텔, 역사유적지, 박물관 등지에서의 예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방문예절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방문하였을 때 방문시간, 체류시간, 사전약속, 선물 등의 예절 등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2부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외국어 학습태도 및 동기를 질문하였다. 질문문항의 선정은 제2언어습득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Gardner(1985)의 외국어학습 ‘태도동기척도’ (Attitude Motivation Test Battery)와 Chiachiere와 Corbin(1995)이 개발한 ‘외국어태도척도’

(Attitude Toward Foreign Language Scale)를 이용하여 현 설문대상자의 외국어 학습동기에 적합한 1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표 2> 참조). 설문지의 모든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이해교육 전문가 3명과 관광교육 전문가 3명에게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문항의 내용과 배열을 일부 조정하였다.

한편 3부에서는 성별, 학년, 전공, 세계뉴스 접촉빈도, 어학연수, 해외여행 경험 등을 묻는 질문 문항과 그동안 학습한 외국어를 잘하는 순서대로 적도록 하였다. 예비조사는 국제관광전공 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호하게 기술된 설문문항의 구조를 수정하였다.

2.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서울 및 광역시에 소재한 4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학의 배정은 인구수에 기초한 쿼타추출 방식의 개념을 적용하여 수도권과 광역시에 동일하게 각각 2개의 대학을 배정하였다. 대도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설문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그룹에 속한 구성원들이 소도시 또는 지방에 소재한 대학생보다 국제이해의 개념에 친숙할 것이라는 일반적 가정을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4개 대학에 학년별로 40매씩 총 64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507매(79.2%)였으며, 이중 외국인 학생이 응답한 설문지,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 25매를 제외하고 총 482매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설문대상자의 국제이해도와 외국어 학습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하였으며, 평균값이 학년별, 전공별, 수도권, 비수도권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외국어 학습태도와 국제이해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상관분석 이전에 외국어 학습태도가 몇 개의 요인으로 분류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의 비율이(67%) 남학생(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의 구성 비율이 높은 관광전공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표본의 학년별 분포는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별로는 호텔전공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조사대상 4개의 대학 중 호텔전공이 있는 대학이 한 개 대학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세계뉴스 접촉빈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주일 1~4회라고 응답한 학생이 62%, 매일이라고 응답한 학생도 16%에 이르러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세계뉴스를 접하는 학생이 총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여행 경험도 과반수 이상이(55%) '있다'고 응답하여 조사대상 학생들의 국제뉴스에 대한 관

〈표 1〉 표본의 특성 (N=482)

요 인	구 분	명 (%)	요 인	구 분	명 (%)
성 별	남	161 (33.4)	해외여행 경험	유	263 (54.6)
	여	321 (66.6)		무	219 (45.4)
학 년			해외여행 횟수	1회	121 (25.1)
	1학년	124 (25.7)		2회	63 (13.1)
	2학년	110 (22.8)		3회	25 (5.2)
	3학년	131 (27.2)		4회	14 (2.9)
	4학년	117 (24.3)		5회 이상	37 (18.4)
전 공			어학연수 경험	유	73 (15.1)
				무	409 (84.9)
	관광경영	255 (52.9)	어학연수 기간	1-3개월	23 (32.4)
	호텔경영	7 (1.5)		4-6개월	14 (19.7)
	컨벤션	63 (13.1)		7-12개월	27 (38.0)
	국제관광	52 (10.8)		1년 이상	7 (9.9)
	관광학	105 (21.8)	해외인턴 경험	유	11 (2.3)
세계뉴스 접촉빈도 (일주일)				무	470 (97.5)
	1번 미만	68 (14.2)	해외인턴 기간	1-3개월	6 (60.0)
	1-2번	161 (33.4)		4-6개월	1 (10.0)
	3-4번	136 (28.2)		7-12개월	3 (30.0)
	5-6번	39 (8.1)			
	매일	75 (15.6)			

심 및 해외여행 경험은 일정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어학연수 경험과 해외인턴 경험이 있는 학생은 각각 15%, 11%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가진 대학생이 아직 많지 않은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 외국어 학습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외국어 학습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시된 15개의 문항이 몇 개의

태도로 범주화될 수 있는가를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설문문항은 구형성 검증결과 KMO와 Barlett값이 .920, Chi-square=3206.479, f=105, sig=.0.000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과 배리맥스 회전방법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총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전반적으로 과거 연구에서 나타난 3개 유형의 언어학습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외국어 학습태도의 요인분석 결과

설문내용	요인	공통성	평균	표준 편차
1요인: 통합적 태도 (고유값 = 6.26, 분산 = 30.26, 크론바하알파 = .899)				
외국어를 배워 원어민과 대화하고 싶다.	.674	.641	4.24	.789
외국어를 배워 그들의 문화와 삶의 양식을 배우고싶다.	.699	.584	4.18	.869
외국어를 배워 그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774	.688	4.25	.830
외국어를 배워 원어민 친구를 사귀고 싶다.	.828	.718	4.22	.829
외국어를 잘해 남들로부터 외국어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다.	.672	.610	4.29	.819
외국어를 배워 보다 많고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724	.642	4.19	.845
외국어를 배워 외국인학생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694	.628	4.10	.859
2 요인: 내재적 태도 (고유값 = 1.44, 분산 = 18.46, 크론바하알파 = .782)				
외국어를 배우는 게 재미있다.	.754	.678	3.71	.919
외국어는 매력적인 언어이다.	.649	.643	3.95	.878
외국어 발음이 듣기 좋다.	.726	.545	3.40	.949
외국어는 항상 나의 관심을 자극한다.	.687	.591	3.67	1.035
3 요인: 도구적 태도 (고유값 = 1.12, variance = 14.21, 크론바하알파 = .653)				
나는 취업을 위해 외국어 공부를 한다.	.669	.505	3.76	1.011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한다.	.797	.679	3.54	.958
외국어를 아는 것은 직장에서 성공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725	.670	3.95	.956

한편 세 가지 요인은 모두 크론바하알파 계수가 .65에서 .90에 분포하고 있어 신뢰도 측면에서 문항의 내적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모든 설문문항의 요인적재량은 .65에서 .83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적재량이 .4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외국어 학습은 나의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문항은 분산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제외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통합적 태도가 30%, 내재적 태도가 19%, 도구적 태도가 14%의 분산설명력을 보여 세 요인 모두 합해 전체 분산의 63%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조사대상자의 국제이해도와 외국어 학습태도

조사대상자의 국제이해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점 척도에서 평균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어 학습태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보다 높은 4.0을 보여 조사대상자의 외국어 학습태도 평균이 국제이해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조사대상자의 국제이해도가 보통을 넘는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국제이해보다 외국어 학습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조사대상 학생들은 외국어를 학습함에 있어 그 언어권의 사람과 교류하고, 만나며, 서로 사귀고, 친구 등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통합적 동기 및 태도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M=4.2$), 그 다음으로 취업, 경력, 사회생활에 필요해서 공부하는 도구적 동기($M=3.8$), 즐거움 위해 공부하는 내재적 동기($M=3.7$) 순으로 학습태도를 보였다. 세 개의 언어학습태도 모두 국제이해도 수준인 평균 3.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의 국제이해도

구분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통합적 태도	4.21	2.00	5.00	.659
도구적 태도	3.75	1.00	5.00	.751
내재적 태도	3.69	1.25	5.00	.737
외국어 학습태도 평균	3.96	2.14	5.00	.582

〈표 4〉 조사대상자의 외국어 학습태도

구분	Cronbach's α	평균	표준편차
외국문화 관심 및 태도	.859	3.66	.431
국제예절에 대한 지식	.766	3.53	.695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853	3.46	.479
세계의식	.666	3.31	.503
평균	.927	3.49	.367

4. 국제이해도와 외국어 학습태도의 관계

외국어 학습태도가 국제이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어 학습태도와 국제이해도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r=.6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상관관계는 외국어 학습이 국제이해도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 학습 태도 중 통합적 태도가 국제이해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r=.61$) 학습자의 통합적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국제이해도의 향상을 위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내재적 태도($r=.55$)와 도구적 태도($r=.26$)도 유의

〈표 5〉 국제이해도와 외국어 학습태도의 상관계수(r)

구분	외국어 학습태도	통합적 태도	내재적 태도	도구적 태도
국제이해도 평균	.618**	.607**	.546**	.258**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630**	.655**	.578**	.187**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413**	.410**	.359**	.141**
세계의식	.411**	.393**	.379**	.184**
국제예절	.362**	.337**	.296**	.214**

** p<.01

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내재적 태도가 언어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열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교육을 통한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구적 태도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아 통합적 태도에 보다 역점을 두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국제이해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이해도 구성 요소 중 어느 항목이 외국어 학습태도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외국어 학습태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3$). 이것은 외국어 학습을 하게 될 경우 국제이해의 요소 중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r=.41$), 세계의식($r=.41$), 국제예절($r=.36$)이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언어별 국제이해도와 외국어 학습태도의 관계

외국어 학습을 통해 국제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이 외국어별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언어별로 외국어학습태도와 국제이해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관광학부에서는 현재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에는 다른 외국어가 전공과목에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손해식, 안영민, 조명환, 2005), 표본의 분포에서도 영어를 제1외국어로 응답한 비율이 74%, 일본어 16%, 중국어 6%순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외국어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외국어 학습태도와 국제이해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표 6>, <표 7>,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관계수(r)가 영어의 경우에는 .64, 일본어의 경우에는 .57, 중국어의 경우에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언어별 상관계수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전반적으로 상관계수도 높아 언어와 상관없이 외국어 학습태도는 국제이해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분석결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언어별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하나 발견되는데, 언어학습의 도구적 태도에서 일본어와 중국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영어의 경우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영어의 경우 다른 외국어와 비교해 도구적 동기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영어가 외국어이기 이전에 국제공용어(*lingua franca*)의 지위를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도 도구적 동기는 다른 학습태도와 비교해 상관계수가 현저히 낮기($r=.29$)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국어 학습에서 언어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도구적 태도는 다른 학습태도와 비교하여 국제이해의 증진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분석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6〉 국제이해도와 영어 학습태도의 상관계수(r)

구분	영어 학습 태도	도구적 태도	통합적 태도	내재적 태도
국제이해도 평균	.635*	.289**	.621**	.566**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642**	.223**	.663**	.599**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438**	.188**	.431**	.365**
세계의식	.442**	.221**	.425**	.401**
국제예절	.360**	.202**	.334**	.314**

** p<.01

〈표 7〉 국제이해도와 일본어 학습태도의 상관계수(r)

구분	일본어 학습 태도	도구적 태도	통합적 태도	내재적 태도
국제이해도 평균	.566**	.163	.562**	.484**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618**	.087	.641**	.555**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302**	-.056	.307**	.374**
세계의식	.317**	.002	.316**	.351**
국제예절	.397**	.344**	.371**	.174

** p<.01

〈표 8〉 국제이해도와 중국어 학습태도의 상관계수(r)

구분	중국어 학습 태도	도구적 태도	통합적 태도	내재적 태도
국제이해도 평균	.562**	.323	.491**	.495**
외국문화에 대한 관심	.554**	.133	.637**	.449*
국제이슈에 대한 태도	.337	.025	.413*	.284
세계의식	.385*	.424**	.181	.376*
국제예절	.247	.275	.119	.234

** p<.01, * p<.05

V. 결 어

본 논문은 외국어 교육에서 학생들의 국제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증조사는 외국인 관광객과 빈번한 접촉으로 외국어교육이 강조되는 관광학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482명의 유효 샘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한 결과 외국어 학습태도는 국제이해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2$). 특히 외국어 학습태도는 요인분석 결과 도구적 태도, 통합적 태도, 내재적 태도의 세 가지 학습태도로 분류되었으며, 이 중 통합적 태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61$).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외국어교육이 언어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제이해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국어 학습의 통합적 동기를 강조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언어학습의 통합적 태도는 외국문화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특히 외국인과의 실질적인 접촉에 의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및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해당 외국인 커뮤니티가 존재할 경우 이들과 접촉 기회를 만들어주고, 온라인상에서 외국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내 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캠퍼스 내에서 외국인 학생과의 상호접촉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2언어(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가 아

닌 외국어로서의 영어(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교육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호접촉의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해외어학연수,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등 해외를 경험할 수 있는 대학의 다양한 해외체험프로그램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다 광범위하게 정규 교과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외국 및 외국인과 접촉할 수 있도록 인터넷 상의 학생간 상호교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간 교과목에서 이런 시도가 있어왔으며(Corbett, 2003, 2010; Kinginger, 2004), 이러한 시도는 외국어교육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목으로 확대되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언어별로 외국어학습태도와 국제이해도의 상관관계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본 결과 영어($r=.64$), 일본어($r=.57$), 중국어($r=.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으로 언어학습의 도구적 태도는 일본어와 중국어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영어에서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어가 외국어로서 뿐 아니라 국제공용어(lingua franca)로서의 지위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상관계수의 크기가 다른 언어학습 태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r=.29$) 것을 감안하면, 이 분석결과 역시 국제이해교육의 관점에서 언어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외국어교육보다 통합적 태도를 강조하는 외국어교육이 보다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외국어 학습태도와 국제이해도가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실증조사를 통해 밝혀냄으로써 외국어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을 융합할 필요가 있음을 실

증적으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외국어 학습태도와 국제이해의 다양한 요소는 서로 관련성이 높아 외국어교육에서 국제이해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국어 과목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은 외국어 학습자의 학습태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언어습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양자 간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제이해교육은 사회과 교과목을 중심으로 통합방안이 논의되었지만 외국어 과목을 중심으로도 다양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 및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신일, 김영화, 김현덕(1995). **국제이해교육의 실태와 국제비교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정책연구보고.
- 김현덕(2003). 미국 국제이해교육의 동향. **국제이해교육의 동향: 미국·일본·호주·한국**. 서울: 정민사.
- 손해식, 안영민, 조명환(2005). 우리나라 관광관련 대학 교육과정 모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연구**, 20(1), 193-205.
- 안중협(2008). 국제어로서 영어교육과 국제이해교육: 세계시민성 함양과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영미문화**, 8(1), 153-178.
- 이병민(2008). 국제이해교육에 있어서 외국어 교육 이론: 인지주의적 접근의 한계. **제9차 국제이해교육학술대회 논문발표집**, 31-41.
- 이상우, 정수원 (2010). **글로벌 에티켓과 비즈니스**. 서울: 만남.
- 조영대, 하영습, 최승호(2003). **글로벌 에티켓과 매너**. 서울: 백산출판사.
- 石川祥一(2008). 國際理解教育と日本の英語教育. **제9차 국제이해교육학술대회 논문발표집**, 215-220.

- Clément, R. & Kruidenier, B. G.(1983). Orientation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 The effects of ethnicity, milieu, and target language on their emergence. *Language Learning*, 33, 273-291.
- Corbett, J.(2010) *Intercultural Language Activit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bett, J.(2003). *An Intercultural Approach to English Language Teaching*.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 Corbin, S. S. & Chiachiere, F. J.(1995).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scale measuring attitudes toward foreign languag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5, 258-267.
- Dörnyei, Z. & Csizér, K.(2005) The effects of intercultural contact and tourism on language attitudes and language learning motivation.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24(4), 327-357.
- Dörnyei, Z. and Csizér, K. & Németh, N.(2006). *Motivational dynamics, language attitudes and language globalisation: a Hungarian perspective*. Clevedon, UK: Multilingual Matters.
- Ellis, R.(1986).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rdner, R. C.(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role of attitudes and motivation*. London: Edward Arnold Publishers.
- Gardner, R. C. & Lambert, W. E.(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language learning*. Rowley, MA: NewburyHouse.
- Gardner, R. C. & Masgoret, A. M. & Tremblay, P. F.(1999). Home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8, 419-37.
- Harzing, A. & Maznevski, M.(2002). The Interaction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A Test of the Cultural Accommodation Hypothesis in Seven Countries.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2(2), 120-139.
- Kim, K. J.(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English achievement. *English Teaching*, 59(4), 97-120.

- Kinginger, C.(2004). Communicative Foreign Language Teaching Through Telecollaboration. In K. van Esch and O. St. John (eds) *New Insights into Foreign Language and Teaching* (pp.115-130). Frankfurt am Main, Germany: Peter Lang.
- Masgoret, A. M.(2006). Examining the role of language attitude and motivation on a sociocultural adjustment and the job performance of sojourners in Spai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0, 311-331.
- Masgoret, A. M. & Gardner R. C.(2003). Attitudes, motiva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A meta-analysis of studies conducted by Gardner as associates. *Language Learning*, 53(1), 167-211.
- Noels, K. A. & Pelletier, L. G. & Clément, R. & Vallerand, R. J.(2000). Why are you learning a second language? Motivational orientations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Language Learning*, 50, 57-85.
- Ortega, L.(2009).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Hodder Education.
- Quist, G.(2000). Language Teaching at University: A Clash of Cultures. *Language and Education*, 14(2), 123-139.
- Reisinger, Y.(2009). *International Tourism: Cultures and Behavior*. Burlington, MA: Butterworth-Heinemann.
- Sampson, D. L. & Smith H. P.(1957). A scale to measure world-minded attitud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 99-106.
-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s and International Studies.(1979). *A Report to the President from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Foreign Language and International Stud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Vansteenkiste, M. & Lens, W. & Deci, E. L.(2006). Intrinsic versus extrinsic goal contents in self-determination theory: another look at the quality of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41, 19-31.
- Yashima, T. & Zenuk-Nishide, L. & Shimizu, K.(2004) The Influence of Attitudes and Affect on Willingness to Communicate and Second Language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54(1), 119-152.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from the EIU Perspectives

Chang Kee Min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an essential part in EIU. It is because foreign language plays an important role not only in communication with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but also in the development of cultural knowledge and attitude. But the focu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has mostly been placed on linguistic competence rather than cultural one. This study tries to find out the associations between foreign language study and the major EIU elements, such as interests in foreign culture,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issues, worldmindedness and international etiquette through an empirical study. A sample of 482 university students from tourism-related majors where foreign language study is emphasized was used for a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results revealed that foreign language attitudes had the highest association with the interests in foreign culture($r=.63$), being followed by attitudes toward international issues ($r=.41$), worldmindedness($r=.41$), and international etiquette($r=.39$). It was also found out that these associations were most prominent with the integrative attitude, while the instrumental attitude showed a low association be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English language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it was suggested that the integrative attitude in

foreign language learning, rather than the instrumental attitude, should be encouraged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of language learners. Especially a provision of opportunities to have contacts with target language communities was emphasized. A need for future research in relation to the integration of EIU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was suggested.

Key words : foreign language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EIU), level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tegrative attitude, instrumental attitude

투고신청일 : 2013. 04. 30

심사수정일 : 2013. 06. 15

게재확정일 : 2013. 06. 15